

구약논단

제 16권 3호(통권 37집) 2010년 9월 30일

김 필희(에스라대학원대) 호세아 12장의 야곱전승	216
본 연구는 호 12장의 야곱전승에 대한 종래의 창세기 의존적 해석에서 벗어나,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주목하면서, 호세아의 관점을 찾는 데 있다.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의 아람도피를 출애굽사건에 연결시키며, 야곱전승을 국가적 자랑으로 해석한다.	
Kim, Pil-Hoe Jakobtradition in Hos 12	216

호 12장의 야곱 전승

김 필희 | 에스라성경대학원

1. 서론

기원전 8세기 후반 북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 호세아는 왕정 시대의 다른 어떤 예언자들보다도 풍부하게 이스라엘의 고대 전승을 활용하면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불러낸 출애굽의 해방 사건(호 11: 1; 12: 14; 13: 4)과 야훼의 인도로 함께 길을 간 광야 시대(호 9: 10; 13: 5; 참조 호 2: 16-17)를 직접 언급하거나,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호 8: 1)과 십계명(참조 호 4: 2)을 고발의 근거로 사용한다. 또 그는 광야세대가 요단을 건너기 직전 싯딤에서 바알브올을 섬기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우상 숭배의 배교 이야기(호 9: 10; 참조 호 민 25: 1-5)와 사사 시대 말기의 왕정 도입에 관한 전승(호 13: 10; 참조 삼상 8: 5, 19-20)도 인용한다. 더 나아가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예언자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호 12: 14), 족장 야곱 전승에 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다(호 12: 4-7, 13).

호세아가 어떻게 이러한 전승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통일된 의견이 없다. 호세아 이전 시대에 전승들이 글로 고정되었을 수도, 또는 호

세아가 구전 전승에 의존했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식으로 간에 이 전승들이 호세아의 청자와 독자에게 잘 알려졌다라는 사실이다. 또 호세아서에 간결하고도 요약적으로 언급되는 전승들이 그 내용에 있어 오경의 해당 전승들과 거의 일치하기에 전승의 기본 요소들이 호세아 이전에 확정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 있다.

호세아서의 전승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12장에 언급된 야곱 전승을 선택해서 그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호세아서의 야곱 전승(호 12: 4-5, 7, 13)이 예외적인 것은 다른 예언서들의 야곱 전승과 단순 비교해 보아도 분명해진다.¹⁾ 세 곳에서(암 1: 11-12; 욥 10; 말 1: 2-3) 야곱과 예서의 혈연관계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에돔을 고발하기 위해 활용되고, 사 43장 27절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고발하기 위해 그 뿌리인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네 시조가 범피하였고”라고 말한다(참조 렘 9: 3-5). 야곱 이야기의 구체적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야곱과 예서가 형제라는 신학적 진술이나 야곱에 관한 포괄적 평가만 전해준다. 또 아모스의 예를 제외하고 모두 포로기 이후의 문서들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 호세아서 안에서도 야곱 전승의 활용은 다른 전승들과도 구별된다. 출애굽과 광야와 계약에 관한 전승들은 각각 하나의 사건으로 간단하게 언급되는데 비하여, 야곱 전승에서는 야곱과 관련된 주요 이야기들이 압축적으로 이어져 소개된다. 창세기가 전해주는 야곱 이야기의 핵심적 사건들을 12장 4-7절과 13절에서 대부분 만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호 12장의 야곱 전승이 일찍부터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음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다면, 야곱 전승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호세아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호세아가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창세기의 야곱 전승이 왕조 초기에 속하는 문서에서 나온 것이라면 의존관계의 방향이 비교적 분명해지지만, 소위 J-문서와 E-문서가 호세아 이후에 속한다면,³⁾ 상호 의존관계는 아주 모호해진다. 최근의 연구는 다양한 가설로 모세오경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에⁴⁾ 양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

본 소고에서 장과 절의 구분은 BHS의 구분을 따른다.

- 1) 예언서들 안의 나타난 족장 전승들에 관해서는 C. Jeremias, “Die Erzväter,” 206-222쪽을 참조하라.
- 2) 암 1: 10-11의 포로기 이후의 편집에 관해서는 D. U. Rottzoll, *Studien zur Redaktion und Komposition des Amosbuches* (BZAW 243), (Berlin: de Gruyter, 1996), 30-35쪽을 참조하라.
- 3) 참조 W. D. Whitt, “The Jacob Traditions,” *ZAW* 103(1991), 18-43쪽.

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의 야곱 전승과 창세기의 야곱 전승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음도 분명하다. 아마도 우리는 문학적 의존보다는 벨엘과 같은 북 왕국의 성소나 제사장들을 통해 전달된 다양한 형태의 구전 전통에서, 그리고/또는 오경의 자료들과 공통된 소스(出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 곧 호세아는 창 26 - 35장에 기록된 야곱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야곱 전승을 알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가 호 12장의 야곱 전승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도 유일한 배경임에는 틀림없지만, 해석의 틀로 사용될 수는 없다. 호세아의 야곱 전승은 일차적으로는 호세아서의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상응하여 본 논문에서는 전승 사적 문제보다는 주로 해석학적 질문에 관심을 집중할 것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던 야곱 전승을 통해 호세아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일까? 호세아는 어떤 동기에서 야곱 전승을 인용했을까?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와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호세아의 야곱은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긍정적인 인물의 전형인가? 또는 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부패를 보여주는 부정적인 인물의 전형인가?

이를 위한 전 단계로, 우리는 먼저 호 12장의 야곱 전승과 창세기의 야곱 전승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기로 한다. 양자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호세아가 보여주는 야곱 전승의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2. 창세기의 야곱 전승과 호세아의 야곱 전승

호 12장 4-7절과 13절에서 야곱 전승과 관련된 네 장면을 볼 수 있다. 먼저 북 왕국의 시조로 간주되는 족장 '야곱'(יַעֲקֹב)의 이름과 동사 עָבַד(아삽/발꿈치를 잡다, 자리를 빼앗다, 속이다) 사이의 언어유희를 활용하는 호 12장 4a절은 창 25장 26절하고 내용상 일치한다. 창세기의 야곱 출생 기사(창 25: 21-26)에 의하면,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를 야곱이라 불렀다. 이름 '야곱'의 기원을

4) 참조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66쪽 이하; O. Kaiser, *Grundriss der Einleitung*, Bd. 1, (Gütersloh: Gerd Mohn, 1992), 51쪽 이하.

5) L. Ruppert, "Herkunft und Bedeutung," 488-504쪽, 특히 502-503쪽; Whitt, *릿글*, 18-43쪽. 메켄지는 호 12: 4-5와 E-문서 사이의 관련성을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참조 S. L. McKenzie, "The Jacobtradition in Hosea xii," 320-321쪽.

‘발뒤꿈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קָעַף (아킵)으로 설명한다. 야곱의 이름에서 어근 קָעַף 을 본다는 점에서 호세아와 창세기는 일치한다. 전자는 이를 동사로, 후자는 명사로 활용한다. ‘속이다’의 모티브는 창세기의 출생 기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후에 아버지를 속여 자기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비난하면서,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동사 קָעַף 에 연결시켜 해석한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창 27: 36). 에서에 의하면, 야곱은 그 이름에 걸맞은 사기꾼이다.

족장 야곱의 다른 이름 ‘이스라엘’에서 동사 סָרַח (사라/싸우다)와 ‘하나님’을 읽어내는 호 12장 4b절과 5a절은 내용상 창 32장 23-33절의 요약이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던 야곱은 압북 건널목에서 ‘어떤 사람’(창 32: 25)을 만나 그와 동틀 때까지 싸움을 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의 엉덩이뼈를 치지만(호 12: 26), 그래도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 축복을 청하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호 12: 29). 동사 ‘싸우다, 겨루다’와 ‘이기다’는 양쪽에 모두 등장하지만 동사 ‘울다’와 ‘간구하다’는 창 32장 23-33절에는 나오지 않는다. 야곱의 싸움 상대도 창세기에서는 ‘어떤 사람’(שׂרִישׁ 이슈)으로 언급되다가 창 32장 29절과 31절에서 ‘하나님’으로 밝혀지지만, 호세아는 ‘하나님’과 ‘천사’로 언급한다.⁶⁾ 또 창세기의 야곱은 공격을 당하는 것 같지만(창 32: 25), 호세아의 야곱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싸운다. 호세아의 야곱 전승과 창세기의 야곱 전승 사이의 간격이 넓혀진 것을 볼 수 있다. 때로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에 상응하는 내용을 야곱이 축복을 강청하는 창 32장 27절에서 찾거나,⁷⁾ 또는 야곱이 에서와 만나

6) E. K. Holt(*Prophesying the Past*, 35-6쪽; cf. Whitt, *릿글*, 33쪽)는 4b절과 5a절로부터 야곱이 한번은 하나님과, 다른 한 번은 천사와 싸웠다고 추측한다. 전자의 전승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후자의 전승만 창세기에 남았다고 본다.

7) 참조 H. Gese, “Hosea 12:3-14,” 42쪽; D. Stuart, *Hosea-Jonah* (WBC 31), 191쪽; 참조 A. Bentzen, “The Weeping of Jacob, Hos. XII 5A,” 58쪽. 싸움에 이긴 야곱이 울며 간구했다는 말에서 논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주석자들은 ‘이기다’의 의미를 약화시켜 ‘견디다, 버티다’로 이해한다(D. R. Daniels, *Hosea and Salvation History*, 43쪽). 하지만 창 32: 29는 동일한 동사로 야곱이 싸움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준다.

서로 눈물을 흘리는 창 33장 4절에 연결시키기도 하지만,⁸⁾ 이는 창세기의 야곱 전승 안에서 호세아의 야곱을 해석할 때 생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울며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이 특별 전승(sondertradition)에서 기원하는 지,⁹⁾ 또는 호세아의 해석에 속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적어도 창세기의 야곱 전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임은 분명하다.

호 12장 5b절과 7절은 창 28장 10-22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¹⁰⁾ 때로는 호 12장 5b절의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와 창 35장 13-15절의 ‘그/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야곱이 벰엘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창 35장 1-15절에 연결시키기도 하지만,¹¹⁾ 이는 호세아의 야곱을 창세기의 야곱에 일치시켜 읽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계시 장소 벰엘의 강조와 사용된 동사 **נָסַב**(마차/발견하다, 만나다)는 벰엘에서의 처음 만남을 시사해 준다.¹²⁾ 무엇보다도 호 12장 7절에 상응하는 언급을 창 35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 “너는 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돌아올 것이다”로 옮길 수 있는 호 12장 7a절은 내용과 표현에 있어 창 28장 15절(“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에 가깝다.¹³⁾ 핵심적인 동사 **שׁוּב**(슈브/돌아오다)와 **שָׁמַר**(사마르/지키다, 이끌다)가 양쪽에 사용되고, ‘함께 하심’의 모티브도 공통적이다. 호세아는 야곱에게 주어진 무사귀환의 약속을 자기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과 권면의 말씀으로 재해석한다.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8) W. L. Holladay, “Chiasmus,” 56-58쪽; L. M. Eslinger, “Hosea 12:5a,” 92쪽; McKenzie, 윗글, 315-6쪽. Good(“Hosea and Jacob Tradition,” 143-4쪽)은 창 35: 8절에 나오는 ‘알론바곳’과 관련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전승을 추측한다.

9) 참조 Rudolph, 윗글, 228-29쪽; J. L. Mays, *Hosea* (OTL), 163쪽.

10) 참조 Ruppert, 498쪽; H. W. Wolff, *Hosea*, 276쪽; F. I. Andersen/D. N. Freedman, *Hosea*, 600, 609, 614쪽.

11) 참조 Good, 윗글, 147쪽; Stuart, 윗글, 191쪽; H.-D. Neef, *Heilstraditionen*, 41-2쪽. 일부 주석자들은(Macintosh, *Hosea*, 486쪽; McKenzie, 윗글, 318쪽) 벰엘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두 이야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본다. Coote(“Hosea XII,” 396쪽)는 5b절을 창 32: 26-30에 관련시킨다.

12) 참조 Daniels, 윗글, 44쪽. 동사 **נָסַב**는 창 28: 10-22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호세아는 이 동사로 호 5: 6과 호 14: 9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참조 호 2: 8, 9), 호 9: 10에서는 광야에서 야훼와 이스라엘의 처음 만남을 표현한다.

13) H. A. Rapp, *Jakob in Bet-El*, 19쪽; J. Jeremias, *Hosea*, 154쪽; Ruppert, 498쪽; Wolff, 277쪽. C. Ackroyd, “Hosea and Jacob,” 252-3쪽.

이다. 단지 돌아감의 대상이 바뀌었을 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호세이는 야곱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현재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지켜주시는 자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늘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 상응하여 베엘의 계시 사건의 위치가 하란에서 돌아오는 길로 옮겨진다. 창세기에서는 베엘이 무사귀환의 출발점이지만, 호세아에게는 목적지가 된다. 창세기의 베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이지만, 호세아의 베엘은 생명과 약속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돌아가야 할 곳이다.

마지막 예인 호 12장 13절은 창 29장 16-30절에 연결된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한 야곱은(창 27: 43) 그곳에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 동안 라반을 섬긴다. 호 12장 13ba절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는 표현과 내용에 있어 창 29장 20절(참조 호 12: 18, 25)의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에 일치한다. 호세아의 경우에는 종살이 기간과 섬긴 대상이 언급되지 않는다. 창세기 야곱 전승에서 동사 **רָמַם**가 ‘[양을] 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창 30장 31절(“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 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이 유일하다. 두 번 사용된 ‘아내를 얻기 위하여’는 호세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소한의 요소로만 구성된 문장에서 [문법적으로 불필요한] 주어 ‘이스라엘’의 사용도 주목할 만하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이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만, 호세아의 야곱은 이미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불린다.

요약하자면, 호세아의 야곱 전승은 큰 틀에서 창세기의 야곱 전승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후자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다. 호 12장 4a절은 창 25장 21-26절에서, 호 12장 4b-5a절은 창 32장 23-33절에서, 호 12장 5b절과 7절은 창 28장 10-22절에서, 호 12장 13절은 창 29장 16-30절에서 상응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 호 12장 4-7절과 13절에 나오는 야곱 전승이 그 전체 구조에 있어 창세기의 야곱 전승하고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아마도 호세아의 의도와 해석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¹⁴⁾ 호세이는 족장의 이름과 관련된 독립된 두 전승을 하나로 묶어 활용한다. 그는 4절에서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을 활용하면서, 북 왕국의 시조 야곱/이스라엘의 전체 모습

14) 참조 C. Jeremias, *윗글*, 213쪽; Macintosh, *윗글*, 493쪽; Rapp, *윗글*, 20쪽.

을 한꺼번에 소개한다. 호세아에게 족장의 이름이 주어지는 사건은 야곱/이스라엘의 본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 후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지만, 그의 성품에는 변함이 없다. [형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곱은 처음부터 [하나님과도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이었다. 베엘에서의 만남(호 12: 5b)과 약속(호 12: 7)이 야곱/이스라엘의 소개(호 12: 4-5a)를 뒤따르면서, 창세기의 경우와 달리, 야곱/이스라엘과 베엘의 하나님이 서로 대치된다.

또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아람의 야곱(호 12: 13)을 가나안의 야곱(호 12: 4-7)으로부터 분리시켜 따로 취급한다.¹⁵⁾ 호 12장의 구조에서 보자면, 야곱은 베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아람으로 도망한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람 체류는 베엘에서 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이지만, 호세아서에서는 약속과 권면(호 12: 7)을 무시한 도망이 된다.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대신에 아람을 쳐다본다. 호세아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와 출애굽 사건을 함께 연결시킨다. 짝을 이루는 호 12장 13절과 14절을 함께 보면, 다시금 야곱과 하나님의 대립을 읽을 수 있다. 야곱은 아람의 들로 도망해 여자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고 양을 치지만, 야훼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당신 백성을 인도해 올리신다.

위의 개략적 언급만으로도 호세아가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선포의도에 따라 야곱 전승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세아가 구조적 틀을 깨뜨리면서 과거의 전통을 현재화시키고 있기에 호 12장 5a절과 7절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야곱에 관한 특별한 전통에 의존하는지는 회의적이다. 위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들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 호세아의 야곱

1) 야곱/이스라엘과 베엘의 하나님(호 12: 4-7)

야곱 전승은 호 12장의 두 번째 단락인 호 12장 3-7절과 다섯 번째 단락

15) 예전의 주석자들은 자주 13절의 위치를 앞으로 옮겼다. W. Rudolph(*Hosea*, 220-25쪽)는 호 12장을 1-7절, [8-10절], 13-14절, 11-12절, 15절로 재정리했고, Chr. Ginsburg(“Hosea’s Ephraim,” 341-2쪽)는 13-14절을 6절 다음으로 옮겼다. 그러나 최근의 주석자들은 일치하여 마소라 본문을 따른다.

인 호 12장 13-14절에 나온다.¹⁶⁾ 호 12장 13-14절이 문학적으로 통일된 단락임은 일반적으로 인정받지만, 호 12장 3-7절은 그 통일성이 의심받기도 한다.¹⁷⁾ 찬양 또는 송영에 속하는 호 12장 6절이 문체와 내용에 있어 문맥으로부터 분리되어 돌출적임은 분명하다. 호 12장 5절은 6절을 건너뛰고 호 12장 7절에 더 잘 연결된다. 후대의 삽입으로 돌려질 수도 있지만,¹⁸⁾ 현재의 문맥 안에서 반드시 이질적이지만은 않다. 야곱 전승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벤엘 계시 사건의 구조에 비춰 호 12장 6절의 기능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창 28장 13a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벤엘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소개하신다. 아래서 살펴보겠지만, 호세아가 의도적으로 참가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¹⁹⁾ 때로는 호 12장 6절뿐만 아니라 2인칭 문장으로 기술된 호 12장 7절도 이차 자료로 분류되기도 한다.²⁰⁾ 이야기의 시점이 과거/야곱에서(호 12: 4-5) 현재/이스라엘로(호 12: 6-7) 바뀌지만, 이는 호세아의 의도에 속한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호 12장 7절은 창 28장 15절(과 20-21절)의 호세아적 해석이다. 호 12장 7절은 두 번째 단락의 정점에 해당하는 구절로, 만약 호 12장 7절이 없다면 호 12장 4-5절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 관한 과거의 이야기로 축소된다. 아마도 여기서 야곱 전승을 자랑스러운 과거의 전통으로만 알고 있던 청자/독자에게 이를 자기 시대의 메시지로 재해석해 소개하는 호세아의 솜씨를 볼 수 있을 것이다.²¹⁾

16) 호 12장의 단락 구분은 단순하지 않다(cf. Jeremias, 윗글, 149쪽 이하; Ehud Ben Zvi, *Hosea*, 윗글, 244-7쪽; Neef, 윗글, 19-22쪽). 여러 가능성을 가운데서 우리는 호 12장 1-2절, 3-7절, 8-10절, 11-12절, 13-14절, 15절의 여섯 단락으로 나눈다. 때로는 13-15절을 한 단락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예를 들면, Sweeney, 윗글, 129-30쪽은 12: 12 - 13: 3을 한 단위로 나눈다) 호 12장 13절과 14절은 구조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서로 병행하기에 호 12장 15절을 전체의 종결부로 독립시키는 것이 더 좋다. 호 12장의 통일성에 관해서는 Andersen/Freedman, 윗글, 593-7쪽; Davies, 윗글, 267-8쪽; Gese, 윗글, 38쪽 이하; H. Utzschneider, *Hosea*, 194쪽 이하; Daniels, 윗글, 39-41쪽을 참조하라.

17) 일부 학자들은 호 12장에서 야곱 전승(호 12: 5-7, 13-14)을 구별해 모두 후대 편집자의 손으로 돌리지만(참조 J. Vollmer, *Geschichtliche Rückblicke*, 107-8+110쪽; L. Schmidt, 1994, 163쪽), 호 12장의 야곱 전승은 일반적으로 호세아의 것으로 인정받는다(각주 26과 27에 언급된 참고도서 참조).

18) 참조 Wolff, 윗글, 276-7쪽; T. Naumann, *Hoseas Eiben*, 109-10쪽; Holt, 윗글, 40-41, 43쪽; Jeremias, 윗글, 154쪽; Ruppert, 윗글, 492쪽.

19) 참조 Andersen/Freedmann, 윗글, 쪽; Daniels, 윗글, 40-1쪽.

20) 참조 Whitt, 윗글, 25쪽; McKenzie, 윗글, 318쪽; Utzschneider, 윗글, 210-11쪽.

21) 참조 Wolff, 윗글, 277쪽; Rudolph, 윗글, 229쪽 이하; Naumann, 윗글, 109쪽.

호세아의 야곱 전승은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들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어 본문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호 12장 4-5 절의 일부 단어는 그 의미가 불확실하고, 호 12장 5절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전혀 불분명하다. 문법적으로는 호 12장 5절에 나오는 여섯 개 동사의 주어를 모두 하나님이나 야곱으로 읽는 것도 가능하다.²²⁾ 원문의 모호성 때문에 번역과 해석에 있어 주석자는 알게 모르게 창세기 야곱 전승에 의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급적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호 12장 3-7절을 다음과 같이 옮겨볼 수 있다.

3 야훼께서 이스라엘을²³⁾ 고소하시고 그의 길에 상응하여 야곱을 징계하시리라. 그 행위에 상응하여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4 그는 모태에서 제 형을 밀어내려했고 또 젊어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

5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주(主)임을 보여주고²⁴⁾ 이기셨다. 그는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다. 벳엘에서 그분은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그와²⁵⁾ 말씀하셨다.

22) Zvi, 윗글, 249-250의 요약을 참조하라.

23) 맛소라 본문의 '유다'가 본래적인지는(참조 Stuart, 윗글, 186쪽; M.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120쪽) 의심스럽다. 호세아의 선포가 유다에서 편집될 때 원래 있던 '이스라엘'이 대체됐던 것 같다(참조 Wolff, 윗글, 267쪽; Bons, *Das Buch Hosea*, 150쪽; Macintosh, 윗글, 479-480쪽).

24) 호 12장 5a절은 번역과 해석에 있어 가장 난해한 구절이다. 쟁점은 **יְהוָה**의 원형을 어디에서 찾느냐이다. 크게 두 경우로 나뉜다. 창세기의 야곱 전승에 의존하는 주석자들은 4b절에 나오는 **יְהוָה**에서(Mckenzie, 윗글, 313-4쪽; Daniels, 윗글, 35-6쪽; Gese, 윗글, 41 각주 8쪽), 반면에 호 12장 4b절의 경우와 달리 **יְהוָה**이 사용된 것에 주목하는 주석자들은 **יְהוָה**(지배하다)에서 원형을 찾는다(Wolff, 윗글, 267-8, 274-5쪽; Jeremias, 윗글, 153-4쪽; Ruppert, 윗글, 495-6쪽; Macintosh, 윗글, 484쪽).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천사'는 난외주로 간주된다. [호세아서에서 '천사'는 이곳에만 사용된다.] 전승과정 중에 '천사'가 본문에 첨가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יְהוָה**를 전치사로 바꿔 읽었다고 본다.

25) **יְהוָה**의 어미가 1인칭 복수인지(Ackroyd, 윗글, 251-2쪽; Holladay, 윗글, 64쪽; Macintosh, 윗글, 485, 487쪽) 3인칭 단수인지는 불분명하다. 현재의 문맥은 후자를 지지한다. 자주 **יְהוָה**로 수정하여 읽기도 하지만(BHS; Wolff, 윗글, 268쪽), **יְהוָה**가 북 왕국의 방언을 반영하는 3인칭 단수 어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cf. M. Dahood, *Ugaritic-Hebrew Philology*, 32쪽; Coote, 윗글, 396-7쪽). 일부 학자들은 앞에 나온 동사 **יְהוָה**와 음성적 일치성을 보여주기 위해 **יְהוָה**가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한다(M. Gertner, "Hosea XII," 279쪽 각주 1). 때로는 단수(과거/조상)와 복수(현재/후손)의 의도적 모호성을 추측하기도 하지만(참조 Good, 윗글, 146쪽; McKenzie, 윗글, 317쪽; Holt, 윗글, 39쪽), 벳엘을 벳아웬으로 조롱하며 부르는데(호 4: 15; 5: 8; 10: 5) 호세아가 자기 시대도 포함시켜 말했을 것 같지는 않다(참조 Daniels, 윗글, 36-7쪽).

6 야훼, 만군의 하나님, 야훼가 그분의 [기억해야 할] 이름이시다.
 7 너는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돌아오리라. 신의와 공의를 지키며
 언제나 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야곱 전승을 인용한 호세아의 동기와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세아가 야곱을 어떤 인물로 소개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창세기의 야곱이 부정적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음은 분명하지만, 호세아의 경우는 매우 미묘하다. 야곱 전승을 비교적 길게 이야기로 기술하는 창세기와 달리 호세아는 두세 단어로 이뤄진 몇 문장으로 압축해서 언급하기에 판단의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학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 의견을 전혀 달리한다. 일부는 호세아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본받아야 할 신앙의 귀감(龜鑑)을 보지만,²⁶⁾ 다른 일부는 호세아가 하나님을 거역한 자기 시대 이스라엘의 원형으로 야곱을 제시했다고 본다.²⁷⁾ 때로는 호세아가 야곱을 비판하기도 또 전적으로 지지하기도 않으면서 모호하게 기술했다고 보기도 한다.²⁸⁾ 창세기의 야곱 전승에 맞춰 이해한다면 호세아의 야곱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관찰에 의하면 호세아는 창세기의 야곱 전승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았다. 호세아가 자신의 신학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야곱 전승을 활용했다면, 우리는 호세아의 야곱 전승에만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들로부터 그의 의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호세아는 호 12장 4절에서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을 활용해서 족장을 소개한다. 그는 먼저 '야곱'에서 동사 **קָבַץ**(아캅)을 읽어낸다. 명사 **קָבַץ**(아캅/발뒤꿈치)에서 파생된 동사로 피엘(Piel)로 사용된 욥 37장 4절('멈추게 하다, 막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칼(Qal)로 모두 세 번 나온다. 창 27장 36절

26) 참조 Ackroyd, 윗글, 245-59쪽; Bons, 윗글, 152-3쪽; Gese, 윗글, 41쪽; Holt, 윗글, 31-46+47-9쪽; Neef, 윗글, 15-49쪽; Stuart, 윗글, 190-91+195쪽; Sweeney, 윗글, 120+127-8쪽.

27) 참조 Andersen/Freedman, 윗글, 593-623; Davies, 윗글, 272-3쪽; A. Deissler, *Zwölf Propheten I*, 56-7쪽; F. Dierich, *Die Anspielungen auf die Jakob-Tradition in Hosea 12,1-13,3*, esp. 331+349쪽; C. Jeremias, 윗글, 212; J. Jeremias, 윗글, 152-155+157쪽; Good, 윗글, 137-51쪽; Holladay, 윗글, 62-3쪽; Macintosh, 윗글, 481쪽 이하; Mays, 윗글, 161-71쪽; Rudolph, 윗글, 220-35쪽; Ruppert, 윗글, 488-504쪽; Vollmer, 윗글, 105-15쪽; Vriezen, "La Tradition de Jacob," 75-76쪽; Wolff, 윗글, 266-88쪽.

28) Eidevall, 윗글, 187쪽; Daniels, 윗글, 50쪽.

과 렘 9장 3절에서는 ‘속이다’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호세아의 경우에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일부는 창 25장 26절에 의존해 ‘발꿈치를 잡다’로 옮기기도 하지만,²⁹⁾ 다수의 의견은 ‘속이다’³⁰⁾ 또는 좀 더 중립적인 ‘...의 자리를 빼앗다’를 선택한다.³¹⁾ 호세아의 야곱 소개가 노골적으로 비판적이지 않을지라도 부정적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³²⁾ 물론 모호한 함의성에 의존해서 야곱을 부정적 인물로 평가한다면 이는 논리의 비약이다. 이름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싸우다’로 해석한 호 12장 4b절에서도 야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을 신앙의 규범적 인물로 그려주는 창 32장 23-33절에서처럼 긍정적으로 언급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언급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우리는 아마도 야곱을 소개한 호세아의 의도를 그가 서로 독립된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추론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출생 이야기’와 ‘브니엘에서의 싸움 이야기’가 야곱 생애에서 발생한 독자적 사건으로 소개되지만, 호세아는 이 둘을 결합시켜 야곱/이스라엘의 본질로 보여준다. 그는 이 두 사건에서 야곱/이스라엘의 전체 삶과 그의 성품과 본성을 읽어낸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야곱이 누구인가? 모태에서는 제 형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하였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싸우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가 아닌가? ‘모태에서부터 한창 힘을 쓸 때까지’ 이웃과 불화하고 하나님과도 다툰 자가 바로 야곱이 아닌가? ‘모태에서’는 창 25장 23절과 24절에 나오지만, ‘젊어서’는³³⁾ 창 32장 23-33절에 나오지 않는다. 최소한의 표현만 사용해 야곱 전승을 기술하는 호세아의 경향에 비춰보면 의도적으로 선택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호 12장 4절에서 야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읽을 때 논란이 많은 호 12

29) 참조 Neef, 윗글, 37쪽; McKenzie, 윗글, 312-3쪽; Gese, 윗글, 41쪽.

30) 참조 Th. C. Vriezen, “Jacob dans Osee XII,” 68-71쪽; Good, 윗글, 140쪽; Ruppert, 윗글, 494-5쪽; Jeremias, 윗글, 152-3쪽.

31) 참조 Ackroyd, 윗글, 248-9쪽; Daniels, 윗글, 35쪽; Whitt, 윗글, 28-9쪽.

32) 참조 Daniels, 윗글, 42쪽; Holt, 윗글, 33쪽.

33) 명사 **יָנַח**은 생식 능력(창 49: 3; 신 21: 17; 시 78: 51), 육체적 힘(욥 40: 16; 사 40: 26, 29) 또는 재물(12: 9; 욥 18: 12; 20: 10)의 의미를 갖는다. **יָנַח**은 ‘그가 젊어서는/어른이 되어서는’(Andersen/Freedman, 윗글, 607쪽; Rudolph, 윗글, 272쪽; Ruppert, 윗글, 495쪽; Whitt, 윗글, 31쪽 각주 51) 또는 ‘그가 부자가 되어서는’(Wolff, 윗글, 274)으로 옮겨질 수 있지만, 병행구의 ‘모태에서’는 전자를 지지한다.

장 5a절은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 자주 간주하듯이 호 12장 5a 절이 호 12장 4b절의 반복이라면,³⁴⁾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단지 겨룬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임을 밝혀주기 위해 첨가했으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호세아는 야곱 전승을 요약하면서 동일한 동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없다. 싸움의 과정이나 결과에 관한 언급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 “하나님은 당신이 주(主)임을 보여주셨다”(יְהוָה יָדָע)가 맞다면, 이는 호세아의 의도적 선택에서 나온 표현이다. 호세아는 얼마간 풍자적으로 이름 ‘이스라엘’을 활용한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웠지만,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다.³⁵⁾ 하나님은 야곱에게 누가 주권자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다.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운명의 결정권자이심을 보여주셨다. 민간 신앙에서 자랑스럽게 회자되던 이름 ‘이스라엘’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신학적 진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자이시다”에 맞대면시켜 그 실체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진 야곱에게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울며 하나님께 매달려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야곱의 후손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호세아에게 벤엘의 계시 사건은 울며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애로운 응답이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긴 여정의 처음에 속하는 벤엘에서의 만남이 야곱 인생의 후반으로 옮겨진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야곱/이스라엘과 그럼에도 은총을 베풀어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대조된다. 출생 이야기와 브니엘에서의 싸움 이야기가 싸움꾼 야곱의 본질을 보여준다면, 벤엘에서의 만남은 야곱/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호 12장 4-5a절의 경우 달리 호 12장 5b절에서는 동사가 미완료로 사용된다. יָדָע(임마누)에서 1인칭 복수 어미를 보는 주석자들은 미완료를 미래로 옮기지만, 문맥과 벤엘에 대한 호세아의 부정적 평가는 족장 야곱의 경우로 한정해 과거 시제로 읽을 것을 지지한다. 단순히 과거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³⁶⁾ 호 12장 6-7절

34) 문장 구조에 있어서도 가능하지 않다. 동사 יָדָע(싸우다)가 방향의 전치사 לָ와 함께 사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호 12장 4b절이나 창 32장 29절의 경우처럼 전치사 לָ이나 מִ로 교정해야 한다.

35) 참조 Ben Zvi, 윗글, 250쪽.

36) 참조 Coote, 윗글, 396쪽; Gese, 윗글, 42쪽 각주 13. 미완료에서 반복적 양태를 읽는 주석자들은 여기에 창 28: 10-22와 창 35: 1-15의 두 사건이 포함되었다고 본다(참조 Vriezen,

의 현재 문맥에서는 언급된 사건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려는 역사적 현재(*praesens historicum*)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³⁷⁾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신 베엘의 계시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호 12장 5b절의 미완료의 도움을 받아 과거에 속하는 호 12장 4-5절의 야곱 전승이 호 12장 6-7절에서 현재화된다. 호 12장 6절의 언급이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문맥에 이질적이지는 않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베엘의 계시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창 28: 13b-15)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을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창 28: 13a)하고 소개하신다. 호세아의 이해에 의하면 베엘은 그 사이에 송아지를 숭배하는(호 10: 5) 벨아웬으로 변질되었다(참조 4: 15: 5: 8: 10: 5). 멸망에 처한 오늘의 에브라임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야훼’이다.³⁸⁾ 에브라임은 가나안의 신 바알이 아니라 족장 야곱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야훼 만군의 하나님’(참조 암 3: 13; 6: 14)을 알아야 한다. 송아지 형상 속에 숨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도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야곱이 울며 간구하자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야훼를 베엘의 하나님으로 기억해야 한다.

호 12장 7절은 때로는 족장 야곱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³⁹⁾ 서두의 독립 인칭대명사 ‘너’와 부사 ‘언제나’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임을 보여준다.⁴⁰⁾ 호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 12장 7절은 내용과 표현에 있어 부분적으로 창 28장 15절에 연결되지만,⁴¹⁾ 베엘에서 주어진 약속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창 28장 13b-15에 의하면, 야곱에게 네 종류의 약속(가나안 땅의 소유, 자손의 번성, 축복, 무사귀환)이 주어진다. 호세아서에서는 베엘 계시 사건의 위치가 바뀌면서 주어진 약속의 내용도 변화를 겪는다. 네 개의 약속 가운데 마

윗글, 75쪽; Ackroyd, 윗글, 251-2쪽).

37) 참조 Rudolph, 윗글, 229쪽; Daniels, 윗글, 36쪽.

38) 참조 출 15: 3; 암 4: 13; 5: 8, 27; 9: 6; 시 102: 13; 135: 13.

39) 참조 Gese, 윗글, 42-3쪽; Daniels, 윗글, 45-6쪽.

40) 참조 Macintosh, 윗글, 492쪽; Stuart, 윗글, 192쪽.

41) 7b절의 **אֱלֹהֵי**(헤세드/신의)와 **אֱלֹהֵינוּ**(미슈파트/공의)는 호세아의 주요 개념으로(참조 호 2: 21; 4: 3; 5: 1, 11; 6: 4-6; 10: 4, 12), 전자가 창 32: 11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라는 의미로 한 번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창세기의 야곱 전승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막 약속 하나와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는 권면 둘이 등장한다.⁴²⁾ 호세아는 야훼께서 아람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준 무사귀환의 약속을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약속과 권면의 말씀으로 옮긴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는 지나간 과거의 회상에 속하지 않는다.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사는(호 12: 1) 야곱의 후예들인 오늘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교훈적 가르침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후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돌아올 것이다. 돌아옴의 목표가 가나안인지 야훼인지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호 12장 7b절의 내용과 호 12장의 구조는 [호 12장 4-5절은 야곱의 도망을 전제하지 않는다. 호 12장 13절에서 따로 언급된다.] 이스라엘이 야훼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는 것 같다(참조 5: 4; 6: 1; 7: 10; 11: 5; 14: 2, 3, 8).

2) 아람의 야곱/이스라엘과 출애굽의 야훼(호 12: 13-14)

야곱 전승을 담고 있는 마지막 구절인 호 12장 13절은 아람에 체류할 때의 야곱과 관련된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하였다는 전반절은 창 27장 43에 연결되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섬겼다는 후반절은 라헬(과 레아)을 아내로 얻기 위해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긴 창 29장 16-30절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원문은 분명하지만 그 해석에 있어서는 호 12장 4-5절의 경우와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창세기에서는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창 29장)가 자손의 변성과 무사귀환을 약속한 벤엘의 계시 사건(창 28장)에 직접 연결되면서 처음부터 긍정적인 전망 아래 놓이지만, 호세아의 경우에는 아람 체류 이야기가 벤엘의 계시 사건으로부터 분리된다. 뿐만 아니라 벤엘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약속 가운데 땅과 후손에 관한 내용(창 28: 13b-14)은 나오지 않고 무사귀환 약속만 호세아 시대의 말씀으로 재해석된다. 창세기의 문맥을 떠나 호 12장 13절만 고려할 때, 아내를 얻기 위해 종살이하면서 양 떼를 돌보는 야곱은 성실함과 인내심을 대표하는 인물일 수

42) 호 12장 7절은 전반절과 후반절의 문체가 다르다. 미완료로 기술된 전반절을 명령문의 후반절에 일치시켜 명령문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때는 상응하여 **כִּי אֵלֹהִים**를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로 옮긴다(Wolff, 윗글, 266쪽; Sweeney, 윗글, 122쪽; Neef, 윗글, 73쪽). 이 경우 7절은 야곱 전승과 관련이 약화된다. 전반절의 미완료에 주목하는 주석자들은 호 12장 7절을 창 28: 15에 나오는 무사귀환 약속의 변형된 형태로 보고 ‘너의 하나님’과 결합된 전치사 **כִּי**를 도구적 의미로 해석한다(Macintosh, 윗글, 491-492쪽; Rudolph, 윗글, 222쪽; Utschneider, 윗글, 192쪽).

도, 또는 여자 때문에 버려서는 안 되는 자유를 포기한 인물일 수도 있다. 또 이스라엘의 국모를 데려오기 위해 위협스런 이방 땅으로 내려간 인물일 수도, 또는 여자와 즐기기 위해 이방 땅으로 도망한 인물일 수도 있다. 또 이방 땅에서 신실함으로 야훼의 축복을 받은 인물일 수도, 또는 이방 땅의 즐거움을 위해 야훼를 버린 인물일 수도 있다.

호 12장 13절은 일차적으로는 짝을 이루는 14절과 함께 독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베엘의 계시 사건은 호 12장 7절에서 정점에 달했다. 야곱 전승에 의해 3-7절에 연결되지만, 그 사이에 놓여진 호 12장 8-12절의 문맥이 보여주는 것처럼 직접적인 연속은 아니다.⁴³⁾ 우리는 야곱의 아람 체류를 언급하는 호 12장 13절의 표현과 호 12장 13-14절의 병행 구조로부터 야곱 해석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3 야곱은 아람 땅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은 여자를 [얻기] 위하여 종이 되었고 여자를 [얻기] 위하여 돌보았다.
 14 예언자를 통하여 야훼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셨고 [이스라엘이] 예언자를 통하여 돌봄을 받았다.

호 12장 13a절과 상응하는 내용을 호 12장 14절에서 찾을 수 없지만, 호 12장 13b절과 호 12장 14절은 표현과 구조에 있어 거의 정확하게 병행한다. 동일한 전치사 בְּ (ב)가 사용된 “여자를 [얻기] 위하여”와 “예언자를 통하여”가 각각 두 번씩 나온다. 동사 נָחַם (사마르/돌보다)가 호 12장 13b절에서는 칼(Qal)로, 호 12장 14b절에서는 니팔(Nifal)로 사용된다. 아내를 얻기 위해 아람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과 종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야훼가 서로 대비된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기 위해 양을 치고, 야훼는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다. 여자를 얻기 위해 종이 되어 돌보는 야곱의 행위와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돌보게 하는 야훼의 행위가 대비된다.⁴⁴⁾ 호 12장 4-7절의 야곱에서 규범적

43) Ruppert(릿글, 500쪽; cf. Daniels, 릿글, 45쪽)는 도망하는 야곱에게 귀환 약속이 주어졌기에 아람으로의 도망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이지 않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 12장 7절에 기술된 베엘의 약속은 창세기의 경우와 달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이스라엘을 전제한다. 호 12장 7a절의 약속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한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 야곱의 아람 도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거슬린 행위가 된다. 땅의 소유와 자손의 번성과 같은 창세기의 약속 대신에 나오는 호 12장 7b절의 권면도 도망하는 야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문맥은 야곱의 도망에 부정적 시선을 보낸다.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학자들은 야곱의 행위와 야훼의 행위를 당연히 보충적으로 이해한다.⁴⁵⁾ 그러나 이 경우에는 호 12장 4-5절과 13절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는다. 무엇을 보여주려고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가 따로 다시 언급되었을까? 아내를 얻기 위해 성실히 일하는 야곱의 모습이 호 12장 4-5절에 기술된 야곱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보완해 준다면,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 야곱의 성실함이 어떻게 출애굽 사건에 연결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야곱의 아내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사랑을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13-14절을 둘러싸고 있는 고발과 심판의 말씀도 호 12장 13절에서 야곱의 긍정적 모습을 읽어내려는 시도에 비우호적이다.

반면에 야곱/이스라엘의 행위와 야훼의 행위를 대립적-대조적으로 이해할 경우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우리의 이해에 의하면, 호세아는 여기서도 야곱의 아람 체류를 부정적으로 재해석한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훼의 행위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돌보는 것 자체에서 목적을 찾지만, 야곱의 행위에 있어서는 섬김 자체보다 섬김 목적에 초점이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야곱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의] 종이 되어 [양 떼를] 돌보았다. 목적 지향적인 야곱의 성품은 4절의 야곱과 다르지 않다. 야곱을 이렇게 이해할 때 호 12장 13b절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나오지 않음은 우연이 아니다. 야곱은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종도 될 수 있고(נַעַב/아바드), 누구/무엇이라도 섬길 수 있는(שָׂמַר/사마르) 인물이다. 특히 동사 נָשָׂא(돌보다, 지키다)의 사용은 주목할 만하다. 목적어로 양과 같은 가축을 갖는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이다.⁴⁶⁾ 같은 동사가 니팔(Nifal)로 사용된 호 12장 14절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선택됐음을 알 수 있

44) Ben Zvi(릿글, 261쪽)는 두 번씩 사용된 “여자를 [얻기] 위하여”와 “예언자를 통하여”의 대립에 강조점이 두어졌다고 보지만, 이는 야곱과 하나님 행위의 성격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려는 목적에 종속된다.

45) 드물지만 일부 학자들은 4-5절에서만 야곱의 부정적 모습을 보기도 한다. Coote(릿글, 392-397쪽, 400-401쪽)에 의하면 야곱이 아람에서 아내를 데려오듯이 남편-야훼께서 애굽에서 아내-이스라엘을 데려오신다. Utzschneider(릿글, 206쪽)도 호 12장 13-14절에서 출애굽사건이 이방에서 신부를 구해오는 이야기로 표현됐다는 Coote의 입장을 따른다. Macintosh(릿글, 508-13쪽)는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을 섬기는 야곱의 행위를 구속사를 이뤄 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부분으로 해석한다.

46) 동사 נָשָׂא는 구약성서에서 칼(Qal)로 427번 등장하지만 창 30: 31; 삼상 17: 20; 렘 31: 10의 세 곳에서만 양 떼의 돌봄과 관련해 사용된다. 호 12: 13에서 창 30: 31의 영향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 여자를 얻기 위해 [누구/무엇인가를] 돌보는 이스라엘과 야훼께서 보낸 예언자를 통해 돌봄을 받는 이스라엘이 대조된다. 야곱/이스라엘이 야훼의 돌봄을 떠났음을 시사해준다. 또 호 12장 7절과 함께 읽자면⁴⁷⁾ ‘신의와 공의’를 지키며 야훼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스라엘이 여자에 마음을 두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지킨다. 동사 **נָסַח**도 호 12장 14절과 관련해서 선택된 표현인지는 불분명하다.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단어가 야곱의 아람 체류에 관한 창세기의 이야기에 빈번하게 등장하기에,⁴⁸⁾ 야곱 전승에서 찾는 것이 훨씬 객관적이다.

호 12장 13b절 문장의 또 다른 특색은 주어의 반복적 사용이다.⁴⁹⁾ 호 12장 13a절에 ‘야곱’이 주어로 등장하기에 ‘이스라엘’은 문법적으로 불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첨가로 호 12장 13ba절과 호 12장 13bβ절의 완전한 교차 구조도 파괴된다. 최소한의 표현으로 야곱 전승을 압축하여 소개하는 호세아의 경향에 비춰볼 때, 의도적으로 아람 땅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어떤 이유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불렀을까? 호 12장 14절과의 연결을 위해서라는 해석은⁵⁰⁾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단순한 연결 이상이다. 이스라엘의 첨가로 호 12장 13b절은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진화한다. 아내를 얻기 위해 기꺼이 이방 땅으로 달아나 종살이를 했다는 점에서 조상 야곱이나 그의 후손 이스라엘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해할 때, 호 12장 13b절과 14절 사이의 대립적 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스라엘은 여자를 얻기 위해 종살이하는 반면에, 야훼는 예언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지켜주신다. 또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바뀌면서 출애굽 사건과의 결합이 가능해졌다. 벨엘에서 야곱/이스라엘을 만난 하나님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이다.

호 12장 13절을 이렇게 읽을 때, 호세아가 야곱의 아내 라헬과 출애굽의

47) 호 12장 13절과 7절은 동사 **נָסַח**뿐만 아니라 두 번씩 사용된 ‘아내를 위하여’와 ‘너의 하나님’에 의해서도 연결된다(Ruppert, 윗글, 500쪽).

48) 참조 창 29: 15, 18, 20, 25, 27, 30; 30: 26, 29; 31: 6, 41.

49) 이름 ‘야곱’과 ‘이스라엘’에 의해 호 12장 13절은 호 12장 4절에 연결된다. Ruppert(윗글, 499쪽)와 Rudolph(윗글, 231쪽)는 호 12장 13절에서 호 12장 4절의 풍자(ironie)를 읽는다. 형의 지위를 차지하려던 자(야곱)가 이방 땅으로 도망하고, 하나님과 싸운 자(이스라엘)가 여자를 얻기 위해 종이 된다.

50) Daniels(윗글, 51쪽)는 ‘이스라엘’의 사용을 시적 다양성의 결과나 또는 14절과의 연결로 보면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지도자 모세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막연히 ‘여자’와 ‘예언자’로⁵¹⁾ 표현한 이유도 분명해진다. 라헬을 얻기 위한 야곱의 종살이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특정 사건을 넘어 일반화된다.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계속 예언자를 보내 당신 의지를 계시하시고(호 12: 11), 이스라엘은 조상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자를 얻기 위해 종살이한다. 일반화된 야곱의 아람 체류 이야기와 목적어의 생략은 야훼의 행위에 대조되는 야곱/이스라엘의 행위를 호세아의 선포를 통해 보충해 줌으로써 도와준다.⁵²⁾

4. 결론

호 12장의 야곱 전승은 창세기 밖에서 만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일 뿐만 아니라, 본문의 연대도 비교적 확실하게 추정할 수 있기에,⁵³⁾ 학자들의 연구 본문으로 자주 채택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호세아의 야곱 전승은 큰 틀에서는 창세기의 야곱 전승하고 거의 일치한다. 호세아는 야곱의 출생 이야기(창 25: 21-26),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이야기(창 32: 23-33), 벰엘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창 28: 10-22), 그리고 야곱이 아람에서 라반을 섬긴 이야기(창 29: 16-30)를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의 선포는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 전승의 중요 사건들이 8세기 후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호 12장 4-7절과 호 12장 13절의

-
- 51) 신명기 신학에 따르면 모세는 이스라엘 예언자의 전형이자 출발점으로, 이후의 모든 예언자들은 모세의 후계자가 된다(호 12장 신 18: 15, 18: 34: 10; 호 12장 민 16: 6-7). 호 12장 L. Peritt, "Mose als Prophet," 588-608쪽.
- 52) 호세아의 선포를 배경으로 해석할 때 호 12장 13절은 출애굽의 하나님 야훼를 배반하고 가나안의 성적 풍요제에 빠진 야곱/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적 고발이 된다(참조 E. Jacob, "La femme et le prophète," 84-5쪽; Rudolph, 윗글, 231쪽; Ruppert, 윗글, 501쪽; Whitt, 윗글, 27+38-41쪽; Jeremias, 윗글, 157쪽; 참조 Wolff, 윗글, 280쪽). 호세아서에서 동사 **נָשָׂא**는 4: 10에 한 번 더 사용된다. 대부분의 주석자들(참조 Davies, 122쪽; Jeremias, 63쪽; Stuart, 71-2쪽; Wolff, 89쪽)은 동사의 목적어를 호 12장 11절 처음에 나오는 **נָשָׂא**(저녁트/음행)에서 찾는다. 이 경우 호 12장 10b절은 "그들이 음란에 빠져[음란을 지키기 위해] 야훼를 저버렸기 때문이다"로 옮겨질 수 있다. 가나안의 성적 풍요제에 대한 고발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Good, 윗글, 149). 여자를 얻기 위해 자진하여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한 야곱처럼 그의 후손 이스라엘도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야훼를 버리고 애굽이나 앗수르에서 정치적 구원자를 찾는다.
- 53) Wolff(윗글, 270+254쪽)는 호 12장에 수집된 말씀들의 역사적 자리를 살만에셀 5세(727-722)의 통치 초반에서 찾고, Gese(윗글, 47쪽)는 좀 더 위로 올라가서 호 12장의 편집을 732년의 파국적 재앙의 영향으로 돌린다.

진술로부터 호세아가 창세기의 야곱 전승에 의존했다는 결론을 끌어낸다면,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호세아의 언급이 너무 압축적이어서 그가 알고 있었던 야곱 전승과 창세기의 야곱 전승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기는 거의 가능하지 않다. 비교적 많이 언급된 벤엘의 계시 사건(호 12: 5b-7)도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⁵⁴⁾

이러한 한계에 직면해서 호세아와 창세기의 차이점이 전승의 상이성이나 호세아의 독자적 해석에서 기인하는지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몇 가지 관찰은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준다. 야곱 전승의 구조 변경은 호세아의 해석에 속한다. 그는 내용상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출생 이야기와 싸움 이야기를 한데 묶고 벤엘의 계시 사건을 뒤로 옮긴다. 족장의 본성과 성품을 보여주는 '야곱'과 '이스라엘'의 두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벤엘 이야기를 서로 대치시킨다. 야곱 여정의 출발점이었던 벤엘의 계시 사건이 그 정점으로 바뀐다. 호세아는 더 나아가 족장에게 준 약속을 자기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으로 재해석한다. 호세아는 벤아웬으로 변질된 벤엘이 원래의 자리를 되찾도록 권면한다. 또 야곱의 아람 도피와 출애굽 사건의 결합도 호세아의 독창적 해석에 속한다. 호세아는 따로 남게 된 아람의 야곱 이야기를 출애굽 사건에 연결시켜, 다시 야곱/이스라엘의 행위와 야훼의 행위를 대립시킨다. 야곱의 아람 도주가 출애굽 사건과 결합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는 하나님과 가나안을 떠나 이방으로 가는 야곱/이스라엘이 대조된다. 호세아가 이처럼 독자적으로 야곱 전승의 기본 구조를 변경시켜 재결합시키거나 출애굽 사건에 연결시켰다면, 창세기의 야곱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야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호세아의 야곱 전승을 해석할 때 주석자들은 호세아만의 특색과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벤엘 계시 사건의 변경된 위치와 출애굽 사건과의 결합에 주목해서 창세기의 야곱 전승과 대화해야 한다. 우리는 아마도 호 12장에서 야곱 전승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에 맞서 자기 시대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재해석해 도전하는 도발적 설교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54) 참조 E. Blum, *Die Komposition der Vätergeschichte* (WMANT 5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4), 161-3쪽.

5. 참고문헌

- Ackroyd, P. R., "Hosea and Jacob," *VT* 13 (1963), 245-259쪽.
- Andersen, F. I./D. N. Freedman, *Hosea* (AB 24), (Garden City: Doubleday, 1980).
- Benzen, A., "The Weeping of Jacob, Hos XII 5A," *VT* 1 (1951), 58-59쪽.
- Bons, E., *Das Buch Hosea* (NSKAT 23/1), (Stuttgarter: Katholisches Bibelwerk, 1996).
- Coote, R. B., "Hosea XII," *VT* 21 (1971), 389-402쪽.
- Daniels, D. R., *Hosea and Salvation History* (BZAW 191), (Berlin: de Gruyter, 1990).
- Davies, G. I., *Hosea* (NCB), (Grand Rapids: Eerdmans, 1992).
- Deissler, A., *Zwölf Propheten Hosea-Joel-Amos*(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1).
- Eslinger, L. M., "Hosea 12,5a and Genesis 32, 29: A Study in Inner Biblical Exegesis," *JSOT* 18 (1980), 91-99쪽.
- Gertner, M., "An Attempt at an Interpretation of Hosea xii," *VT* 10 (1960), 272-84쪽.
- Gese, H., "Jakob und Mose: Hosea 12, -14 als einheitlicher Text," J. W. van Henten et al.(eds.), *Tradition and Re-interpretation in Jewish and early Christian Literature*, FS Jürgen-Christian H. Lebram (Studia post-biblica 36), (Leiden: Brill, 1986), 38-47쪽.
- Good, E. M., "Hosea and the Jacob Tradition," *VT* 16 (1966), 137-151쪽.
- Holladay, W. L., "Chiasmus, the Key to Hosea XII 3-6," *VT* 16 (1966), 53-64쪽.
- Holt, E. K., *Prophesying the Past: The Use of Israel's History in the Book of Hosea* (JSOT.S 19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 Jacob, E., "La femme et le prophète: A propos d'Osée 12/13-14," *Maqqél Shaqed*, Hommage à W. Vischer, (Montpellier: 1960), 83-87쪽.
- Jeremias, C., "Die Erzväter in der Verkündigung der Propheten," H. Donner et al.(eds.) *Beiträge zur Alltestamentlichen Theologie*, FS W. Zimmerli,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7), 206-222쪽.
- Jeremias, J., *Der Prophet Hosea* (ATD 24/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McKenzie, S. L., "The Jacobtradition in Hosea xii," *VT* 36 (1986), 311-322쪽.
- Mays, J. L., *Hosea* (OTL), (London: SCM, 1975).
- Neef, H.-D., *Die Heilstraditionen Israels in der Verkündigung des*

- Propheten Hosea* (BZAW 169). (Berlin, New York: de Gruyter, 1987).
- Perlitt, L., "Mose als Prophet," *EvTh* 31 (1971), 588-608쪽.
- Rapp, H. A., *Jakob in Bet-El: Gen 35:1-15 und die jüdische Literatur des 3. und 2. Jahrhunderts* (HBS 29), (Freiburg: Herder, 2001).
- Ruppert, L., "Herkunft und Bedeutung der Jakob-Tradition bei Hosea," *Biblica* 52 (1971), 488-504쪽.
- Sweeney, M. A., *The Twelve Prophets, vol. I: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Berit Olam), (Collegeville, MN: Glazier/Liturgical Presse, 2000).
- Vriezen, Th. C., "La Tradition de Jacob dans Osée XII," in: *Oudtestamentische Studien I* (1942), 64-78쪽.
- Whitt, W. D., "The Jacob Traditions in Hosea and their Relation to Genesis." *ZAW* 103 (1991), 18-43쪽.
- Wolff, H. W., *Dodekapropheton 1 Hosea* (BK XIV/1), (Neukirchen Kreis Moers: Neukirchener Verlag, 1961).
- Ben Zvi, E., *Hosea* (FOTL XXIA/1), (Grand Rapids: Eedmans, 2005).

검색어

야곱

이스라엘

계시 사건

출생 이야기

야곱의 싸움

야곱의 아람 체류

투고일: 2010년 6월 10일

심사일: 2010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0년 8월 1일

Jakobtradition in Hos 12

Pil-Hoe Kim,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Ezra Bible Institute for Graduate Studies

Hos 12 ist das wohl interessanteste Kapitel des Hoseabuches, da hier Anspielungen auf die Jakobtradition vorliegen. Besonders interessant ist vor allem, weil sich die in Kap. 12 überkommene Jakobtradition einerseits weitgehend mit der entsprechenden Jakobtradition von Genesis berührt und andererseits doch wieder stark von ihr abweicht. Unklar ist aber, in welchem Umfang Hosea auf vorliegende Tradition bekannt war, ob er noch andere Traditionen verwandt hat oder nicht, und wie weit er Partie der 'kanonischen' Jakobgeschichte kennt. Es ist auch umstritten, ob er eine negative oder positive Deutung Jakobs vorlegte. Die starke Divergenz der Hoseainterpretationen ist nicht nur in traditionsgeschichtlicher Frage begründet, sondern auch in den textlichen Schwierigkeiten des 12. Kapitels. Wegen ihrer Undeutlichkeit und der Kürze ihrer Formulierung sind die Anspielungen auf Jakobtradition schwer zu beurteilen.

Hoseas Jakobgeschichte ist deutlich anders von Genesis-Jakoberzählung strukturiert. Hosea stellt der Bethel-Erzählung (12: 5b-7) die Erzählung vom Kampf Jakobs mit Gott/dem Engel (12: 4b-5a) voran und die beiden Geschichten am Anfang und am Höhepunkt des Lebens Jakobs zusammen,

die sich auf die Namengebung Jakob und Israel beziehen. Die Betheloffenbarung und -verheissung ist bei Hosea Gottesantwort auf die weinende und flehende Handlung des streitlustigen, aber von Gott besiegten Jakobs. Zugleich wird die Verheissung wesentlich modifiziert und auf die Umkehr des Volkes Israel angestellt. Hosea verbindet ferner, mit Hilfe vom Namen Israel, die Episode von Jakobs Frucht nach Aram und seinem Dienst um Frau mit dem Exodusgeschehen. Dabei kontrastiert die Handlung Jakobs, der die Flucht nach Aram ergreift, hart mit der Handlung Gottes, der Israel aus Ägypten heraufführt. Mit einem Wort verwendet Hosea die Geschichte des Erzvaters Jakob als Spiegel der schuldigen Versagens und zugleich des (schon verpassten, auf die Zukunft verschobenen) Umkehrens.

Keywords

Jacob
Jacob in Aram
Jacob's strife
Israel
Birth Report
Hieros Logos